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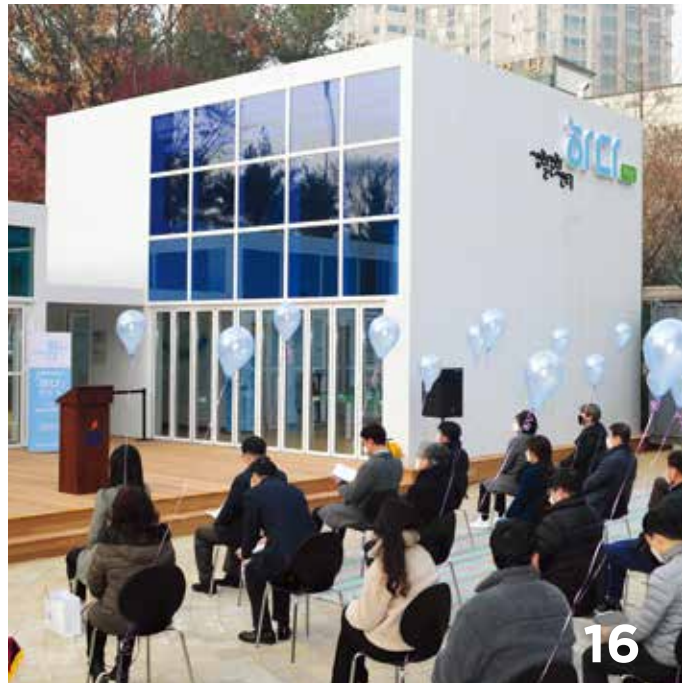
청정하남

온 가족이 역사를 보고 느끼며 배우는
천 년의 역사를 품은 도시 하남입니다.





12



16

시민과 ● 함께

- 4 **정책 런웨이**
함께 키우고 함께 웃어요!
함께하는 육아,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곳
- 8 **줄인 ①**
하남시-신안군 자매결연 1주년 기념
도초도, 하남시의 섬 지정
- 10 **줄인 ②**
임신부터 육아까지 스마트하게
'하남아가랑' 앱 개발
- 12 **브랜드 in 하남**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유구한 역사를 품은 하남역사박물관

오늘의 ● 하남에서

- 16 **뷰파인더**
문화예술 공유 공간 플랫폼
생활문화센터 '하담'
- 18 **지식 샐러드 ①**
새로운 가족의 탄생,
인정을 넘어 이해로
- 20 **지식 샐러드 ②**
우리 집으로 숲이 들어왔다
오늘부터 나도 펫 플랜트!
- 22 **빛나는 학습 공간**
요리로 같이, 가치를 만들다
아워키친 Our Kitchen
- 24 **1%의 어떤 것**
든든한 이웃 경찰
이대형 하남경찰서장

청정하남

2021년 5월호(통권 제 188호)

발행일 2021년 5월 1일 발행인 하남시장 편집인 도시브랜드담당관 발행처 하남시 주소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전화 031-790-6066

홈페이지 www.hanam.go.kr 기획·디자인·제작 ㈜성우애드컴 Tel. 02-890-0900 <청정하남>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보이스아이 바코드 시각장애인을 위해 소식지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들려주는 바코드가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인쇄된 바코드를 보이스아이 전용기기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내용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표지 설명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구와 유물, 문화재 등이 전시되어 있는 하남역사박물관에서 온 가족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역사를 배워갑니다.



22



30

내일의 ● 하남으로

- 26 **생생 가이드**
언택트 시대의 여행법, '차박' 캠핑 떠나볼까?
- 28 **트렌드 ON**
내 손안의 쇼핑 방송, '라방' 전성시대
- 30 **공유 주방**
원기회복을 위한 한 그릇 보약
종합 영양 선물 세트 '바지락'
- 32 **100m 북카페**
놀이터와 도서관이 만난
숲과나무작은도서관
- 34 **요모조모 툰**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아하'

한 걸음씩 ● 나아갑니다

- 36 **문화 톡톡**
- 40 **지금 여기, 하남**
- 42 **의회 소식**
- 44 **포스트 It**
- 48 **놀러 와**
- 49 **하남 In★gram**
- 50 **월간 한 줄**

<<청정하남>> 우편 정기구독 신청

- 온라인: 하남시청 홈페이지 - 왼쪽 상단 - 청정하남 - 시정소식지 구독 신청
 - 오프라인: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매월 20일 이전 접수 시 다음 달부터 수령 가능)
- 주소 변경, 구독 해지를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하남시청 도시브랜드담당관 031-790-6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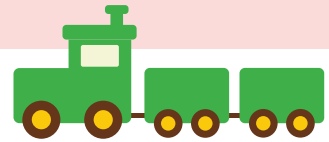
시정 소식 문자 서비스 신청

- 온라인: 하남시청 홈페이지 - 하남소식 - 시정정보 문자서비스 신청
- 오프라인: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발송 내용: 주요 시정 소식(격주), 코로나19 관련 긴급 안내(수시)



함께 키우고 함께 웃어요! 함께하는 육아,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곳

아프리카 속담에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한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이를 기르는 일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인 일로 보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든든한 보육 공간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8년 개관한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어린이집을 지원·관리하고 가정 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양질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지원센터에는 장난감 도서관, 시간제 보육실, 아이꿈 놀이터 등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영·유아 양육 복지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 교직원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어린이집 평가제 및 재무 컨설팅 △대체 교사·조리원 지원 등의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부모 교육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전문가 상담 △Talk&Talk 양육 상담 △영·유아 발달 진단 사업 △장난감 대여 △놀이 방법 지도 및 놀이 프로그램 지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의 가정 양육 지원 사업과 보육 정보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보육 정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족 체험을 통해 하남의 문화 유적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높이고 역사와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걸어서 하남 속으로’, 경기도아빠하이 소모임, 지역 상생과 나눔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자원 재활용을 지원하는 육아친구나눔마켓 프로그램, 마을 공동체와 협력하여 양육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부모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부모 교육 ‘지역사회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가정 양육 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긴급한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월 지원제한 시간 80시간 이후에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시간당 4000원의 자부담으로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아이사랑포털사이트로 지역 구분 없이 예약할 수 있다.





공동의 육아, 공동의 책임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들이 부모의 돌봄 없이 혼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45분이 넘고, 온라인 학습을 혼자서 하는 아동도 38%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하남시가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인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10월 미사강변 동일하이빌 아파트에 처음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신장동에 위치한 백송한신 아파트에 새롭게 개소를 하게 되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다양한 시간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한 돌봄 공간이다. 각 센터에서는 '정기 및 일시 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지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속에서 아이들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사강변 동일하이빌 다함께돌봄센터는 '책과 함께 놀기', '특기 음악활동', '세계문화체험'과 같은 활동 이외에도 '지혜야 놀자'라는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른들의 생활 속 지혜를 배우며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예의범절 등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 능력을 기르고 있다. 여기에 백송한신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학습 돌봄, 독서 지도, 성품 교육, 창의적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에 속한 아이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하여 꿈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중이다.



- ① 찾아가는 부모 교육
- ② 놀이키트 워킹스루
- ③ 부모 안전교육(심폐소생술 실습)



다양한 가족을 위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 1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지역사회 가족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9년, 하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3년에 개소해 가족 기능 강화 및 결혼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최근 한부모·조손 가족, 1인 가구, 맞벌이 등 가족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가족 형태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 정책이 요구돼 두 기관을 통합 운영키로 하였다. 통합센터는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과 함께 ▲생애주기별 교육 ▲가족 상담 ▲1인 가구 지원(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 돌봄 프로그램)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부모 교육, 자녀 교육),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 가족 이중언어 부모 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행한다.

우리 아이 돌봄 걱정 뚫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 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 독박 육아 등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족 품앗이 활동 및 부모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서 장난감 교구 활동을 통한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열린 공동체 공간이 바로 공동육아나눔터이다.

특히 자녀돌봄 품앗이는 우리 가족이 이웃 가족과 함께 모여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그룹 활동으로 한 그룹당 3~5가정에 활동비와 품앗이 활동을 제공한다. 품앗이 활동으로는 등하교지원, 일사·긴급 돌봄 체험, 놀이, 취미, 독서, 반찬, 육아 교육, 생활용품 나눔, 육아·생활정보, 가족 교육·상담 등의 활동이 있다.

여기에 하남시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하남시-신안군 자매결연 1주년 기념 도초도, 하남시의 섬 지정

하남시와 신안군이 자매결연 체결 1주년을 기념하여 신안군의 아름다운 섬 중 도초도를 하남시의 섬으로 지정하고 표지석을 제작·설치하였다.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

하남시와 신안군은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9월 5일 '신안군↔하남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하남시는 박우량 신안군수가 1999년 3월부터 2002년 6월 말까지 부시장과 시장 권한 대행을 역임했던 지역이다.

자매결연 체결 후 하남시와 신안군은 행정·관광·문화예술·교육·체육 등 각 분야별 교류와 우수 시책 및 주민 소득 사업 지원과 정보 등을 교환하며 민간단체 교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아울러 "환경보전 교류 및 생태관광 활성화"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MOU) 체결을 통해 조류 표본 전시 및 서식지 보전·탐조 등 생태관광 활동을 교류하며 환경 보전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신안군은 국제적 철새 중간 기착지인 흑산도에 철새 표본 전시 및 교육을 위한 철새박물관을 개관하여 생물자원 보전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은 박물관 등의 운영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조례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한 65세 이상 관람자, 출향도민(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자매결연 시군민에게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1004점신안 상품권이나 신안군 농수특산물 교환권 등을 지급한다.



도초도, 표지석 제작·설치

전라남도 남서부 해역에 있는 신안군은 군 전체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매결연 1주년을 맞아 그 중 도초도를 하남시의 섬으로 정하고 표지석을 설치하게 되었다. 도초도는 목포에서 서남쪽으로 54.5km 지점에 위치한 섬으로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큰 섬으로 최근 개봉한 영화 <자산

여보>의 주요 촬영지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이곳은 수국공원, 명품 숲길을 조성하여 발전 가능성이 큰 섬으로 신안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인재의 고장으로 유명한 도초도에 하남 시화(市花)인 은방울꽃을 모티브로 표지석을 제작하여 도초도 수국공원에 설치하였다. 신안군은 자매결연 도시의 이름을 따 관내 섬들을 '○○시·군·구의 섬'으로 잇달아 지정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 최서남단의 섬인 가거도를 '평택시의 섬 가거도'로 지정했으며, 하의도를 '김해시의 섬 하의도'로 선포하고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는 2019년 9월 자매결연을 맺었다.

도초도를 하남시의 섬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양 자치단체 주민들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매결연 도시 주민들이 신안군을 방문할 경우 여객선 운임과 숙박료 등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하남시는 "자매결연 도시 간 특산물 직거래를 통해 서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하남시와 신안군은 지속적인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초 마련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두 지자체의 만남이 시너지 효과를 내 문화·경제·행정 등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OPEN

스마트 임신·출산·육아 정보 앱

하남아가랑 사용부탁해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가 개발하고 하남시가 활용합니다.
구글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를 통해 다운로드하세요.

- | 이용 대상 | 임신기~출산 후 1년까지 임신·출산·육아기 부모
- | 제공 정보 | 임신·출산·육아기 생애주기별 지원 정보 영양 관리 서비스,
임신기 정보, 월령별 아기 성장 발달 정보
- | 문 의 | 하남시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031-790-5040)



임신부터 육아까지 스마트하게 ‘하남아가랑’ 앱 개발

내 아이만큼은 스마트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를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정보를 담은 ‘하남아가랑’ 앱이 개발되어 화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똑똑한 육아 앱(App) ‘하남아가랑’을 통해 스마트한 부모에 도전해 보자.



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육아 필수 앱’

임신과 육아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부모들이 크게 늘었다. 과거 육아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으로 어렵사리 찾았던 육아 관련 정보를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어서다. 가짓수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육아 앱이 있는 만큼 처음으로 육아 앱을 써 보려는 초보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앱을 써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모를 위해 하남시가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와 협업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정보를 담은 모바일 앱 ‘하남아가랑’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

센터는 성별 특성을 파악해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하남시는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와 모자보건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임신·출산·육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민요구도 조사를 실시했다. 하남시 모자보건사업 등록자 및 모자보건실 방문자 35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정보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주어진다면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어플리케이션(앱)이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앱 형태의 정보 제공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을 젠더혁신센터가 개발해 하남시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과 육아 정보를 손안에서 해결

‘하남아가랑’ 앱은 임신기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부모들이 새로운 경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의료·정서적 지원과 함께 풍부한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임산·출산·육아 생애주기별 각종 지원 ▲영양 관리 서비스 ▲임신기 정보 ▲월령별 아기의 성장 발달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으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해 정책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산·출산·육아 생애주기별 각종 지원 서비스에서는 계획 임신에 대한 정보(각종 검사, 예방주사, 영양, 생활습관 등), 임신기(임신 검사, 출산 예정일, 표준 모자보건수첩, 엽산제·철분제 제공), 출산 및 산후기(출산 후 관리 정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 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육아기(출생일로부터 생후 1년까지), 부모 교육 및 기타 지원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영양 관리 서비스에서는 생애주기별 영양 관리, 영양플러스 프로그램, 영양 관리 사업의 정보가 제공되며 ▲임신기 정보에서는 임신 초기, 중기, 후기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월령별 아기의 성장 발달 정보에서는 생후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남아가랑 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임신과 출산·육아기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하남아가랑’ 앱은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유구한 역사를 품은 하남역사박물관





하남시는 ‘살아 있는 박물관’이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 미사리 유적(사적 제269호)과 삼국 통일 의 비밀을 간직한 이성산성(사적 제422호), 국내 최대 규모의 철불인 하사창동 출토 철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332호)과 많은 유적과 유물까지… 하남의 유구한 역사를 품은 하남 역사박물관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하남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박물관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면 그 지역의 박물관을 가보라는 말이 있다. 지역 박물관은 그 지역 사람들이 살던 흔적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집과 보존, 연구, 전시 등 본래 기능을 넘어 교육과 참여, 위락의 기능까지 더해져 지역 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추세다. 이런 멀티 기능을 더해 새롭게 재탄생한 박물관이 있다. 바로 하남역사박물관이다.

2004년 6월 하남시 덕풍1동 옛 하남 시청 건물 한쪽에 자리를 마련해 출발한 하남역사박물관은 2014년 10년 만에 덕풍3동에 신축 건물을 지어 다시 문을 열었다. 1층에는 기획전시실과 어린이체험실 등을, 2층에는 조선실과 근현대실, 3층에는 선사실과 고대실고려실 등을 각각 마련했으며, 박물관 외부에 야외 전시장을 갖추었다. 특히 올해 2014년 신축 재개관 이후 8년 만에 고대실 개편을 완료하여 이성산성 전시 공간을 AR(3차원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 기반의 디지털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하남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전시하여 하남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총집합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시대별 유물 체계적으로 전시

하남역사박물관은 다양한 유물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선사실은 사적 제269호로 지정된 미사리 유적을 중심으로 구석기 시대부터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도구와 토기, 한성백제 시기의 계란모양 토기, 깊은 바리 모양 토기, 짧은 목항리 등 당시 미사리인들의 생



고 있다. 그리고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참전한 미 해병 대원 버스비어가 기증한 태극기(등록문화제 제383호) 등과 하남시에서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의 졸업증서, 통신표 등 근현대 유물들을 다양한 전시기법으로 만나 볼 수 있다.

고인돌 등 석조문화재

야외 역사공원 조성

하남역사박물관은 하남시 안에 흩어져 있던 고인돌과 비석 등 석조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야외 역사공원을 조성했다. 대상 문화재는 고인돌 5기, 우응정영세불망비 1기 등 모두 20점에 이른다. 역사공원은 박물관 북쪽에 인접한 풍산지구근린 4호 공원에서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으로 사후 인식, 사회 규모 등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우리나라

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 3층 고려실에 모셔진 철불은 보물 제332호 하사창동 출토 철조석가여래좌상을 정밀 실측하여 복원한 것으로 철불을 받치고 있는 대좌는 규모로 보아 원래 하사창동 출토 철불의 대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청자 접시나 청동소탑 등에서 고려인들의 빼어난 미의식과 금속공예 제작 기술을 엿볼 수 있다.

2층은 조선시대 하남의 교육과 양반 문화를 이해하도록 꾸며 놓았다. 선비의 생활공간인 사랑채에는 문갑과 관복장, 서안, 연상이 놓여 있다. 머리칼을 감췄던 망건과 신분증인 호패는 물론 비녀와 경대 같은 여성들의 생활용품도 볼 수 있다. 향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명부인 청금록, 분청사기와 백자도 종류별·시대별로 전시하고 있다. 광주에 사옹원 분원이 있었으니 도자기도 하남을 대표하는 문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실을 지나면 근대 초기 우리나라 문화에 영향을 미친 서양견문록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쓴 유길준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들과 관련한 유물을 전시하

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있는데 그 수는 약 4만 기에 이른다. 하남시가 위치하는 한강 주변에는 총 50여 기 이상의 고인돌이 보고되어 있으며 그중 17기가 광암동 및 하사창동 등지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우응정영세불망비는 조선 후기 문신 우응정이 민생을 보살폈던 치적을 기리기 위한 비석으로 1916년에 건립된 것이다. 건축 부재인 주초석 3점, 장대석 7점, 문주석 2점은 모두 춘궁동 일대에서 수습된 것들로 하남의 역사와 관련한 자료로서 향후 연구의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다. 하남역사박물관 야외 역사공원은 시민들에게 하남의 청동기시대 고인돌 문화와 역사시대의 석조 유물을 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 박물관으로의 도약, 이성산성 실감관

하남역사박물관이 이성산성 실감관 <이성산성, 한강을 지배하다>를 공개했다. 박물관 실감관에는 증강현실(AR) 및 3D 영상 등 디지털 기술을 담아 첨단 박물관으로의 도약에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실감관 영상실에 입장하면 이성산

성의 사계를 관람일의 기상 정보와 연계한 스마트 대기 영상에 이어서 이성산성의 현재와 과거의 압도적인 위용을 3D 다면 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체험실은 총 세 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길이 8m 벽면에 터치형 인터랙티브를 설치하여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을 획득하는 게임을 접할 수 있는 '이성산성의 보물을 찾아라', 참여자의 손을 화면에 인식하면 적의 공격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이후 참여자가 옥수수알 모양의 성돌을 직접 다듬어 쌓으면서 성벽 내부 구조, 성의 축조 등 역사적 내용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이성산성의 성벽을 쌓아라', 박물관의 각 체험과 이성산성 유적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기반으로 나만의 이성산성을 심시티형 게임 방식을 통해 만들어보는 '이성산성을 지배하라'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하남역사박물관 실감관은 2021년 3월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박물관 관람객 및 하남 시민에게 선보이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단체 관람도 받는다. 아울러 박물관은 하남 미사리 유적(사적 제269호) 등 관내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실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5월 중 하남 불교를 주제로 한 기획전 시도 개막 예정 중이다.

하남의 문화유산은 고유한 역사성과 시대성을 지니고 시민들에게 문화·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 중심에 하남역사박물관이 있다. 앞으로도 하남역사박물관은 수준 높은 소장품을 확보·보존하고 연구하는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함은 물론 각종 특별 전시전을 비롯해 역사 강의,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교육 현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남역사박물관 관람 안내

- 코로나19로 홈페이지 예약을 통한 4인 이하 개인 관람
- 전화 접수를 통한 단체 관람(15명)
- 박물관 관람객 개인·단체 포함 30명 초과 시 입장 불가:
인터넷 관람 예약 필수
-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필수
- **관람료:** 무료
- **관람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입장 마감 오후 5시)
- **휴관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휴관)
- **홈페이지:** www.hanammuseum.com

※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유 공간 플랫폼 생활문화센터 ‘하다’

하남시 생활문화센터 하다는 하남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유 공간이다. 생활문화센터 하다는 ‘하남에서 OO하다’의 준말로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시민이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문화 활동의 허브로 나아가고 있다.



취미를 함께 ‘라이브하다’

하남시청 지하보도 앞 공원에 조성된 생활문화센터 하다는 약 202㎡ 규모의 지상 1층 2개 동의 건물과 지하보도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됐다. 이곳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선물상자와도 같은 유리로 된 외형과 ▲마주침 공간 ▲다목적홀 공간을 카페 같은 분위기로 조성하여 이색적이라는 것 외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지하보도에 ▲모임방 ▲전시실을 두어 어두침침하기만 했던 공간을 주민 활동으로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개관해 시범 운영을 마치고 3월 정식으로 문을 연 하다는 하남 시민들의 생활문화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동아리 모임방 ‘라이브하다’를 운영하고 있다. ‘라이브하다’는 하남 시민 혹은 하남 소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임방 참여 시 생활문화센터 하다 공간 예약이 우선 지원되고 홈페이지의 모임방 페이지를 무료 개설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정한 테마로 묶인 동호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생활 문화 교실 ‘라이브ON’은 활력이 필요한 수요일의 GX 데이와 금요일의 커피데이 외에도 짧은 점심시간의 힐링타임 ‘라이브 뮤직 토크’, 전시를 통해 문화 시민으로 거듭나는 ‘작가의 방’, 라이브하다 모임방을 위한 네트워킹 파티 ‘라이브 데이’가 진행되고 있다.

하남 시민이나 직장인이면 누구나 선착순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해 생활문화센터 야외 공간 등에서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된다. 공간 대여도 가능하다. 다목적홀과 지상 1층은 빔프로젝트, 스크린, 스피커 등이 구비되어 있어 댄스, 연기, 연주,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다. 모임방에서는 소규모 모임과 스터디가 가능하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내는 문화를 통틀어 생활문화라 한다. 생활문화센터 하다는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며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되고 공유되어 전달되는 행동 양식인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다’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일상의 문화를 재구성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지역사회로 연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최한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

그램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난 4월 선정된 공모 사업 '하남愛 살어리랏다'는 사회적협동조합 문화플랫폼 '위드'와 함께 기획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7개월간 추진된다. '하남愛 살어리랏다'는 '청정하다, 기억하다,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신재생 에너지 교육 ▲지역 자원을 활용한 나라사랑 체험 ▲지역 공동체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한마당 등 다양한 활동들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 의식 함양과 지역 자원 발굴을 통한 생활문화와 도시재생의 재해석에 그 의미가 있다.

이처럼 하다는 도시 재생적 측면에서 시민들의 사회적 공여를 유도하여 하남시가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 사례로 시민과 함께 생활문화를 소통하기 위해 '니팅으로 예술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뜨개질 활동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를 모집하여 뜨개질 교육, 재료,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인 '친환경 거리예술 니팅 전시회'를 통해 뜨개질 활동 결과물을 생활문화센터 주변 '나무 옷 입히기' 사업과 연계하여 개인의 취미가 공공적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향후 하다에서 발굴된 다양한 분야의 취향 공동체들을 통해 하남시 곳곳에서 재능기부를 활용한 문화적 향유 기회의 확대가 점차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도 생활문화센터 '하다'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일상 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며 지역 주민의 문화 감수성을 채우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공유하며 보다 친근한 도시재생을 구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생활문화센터 하다 운영 안내 —

- 시간: 매주 수 ~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휴관 월, 화, 법정공휴일)
- 대관: 일일 최대 3시간
(이용 최소 1일 전까지 사전 신청)
- 카카오톡: 생활문화센터하다
- 홈페이지: www.livehada.com
- 문의: 031-791-5002

※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인정을 넘어 이해로

뉴노멀 시대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진정한 가족인가'라는 질문들이 쏟아지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입양, 동거, 친구 등 혈연 그 이상의 무언가로 맺어진 새로운 개념의 가족 형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단어, 가족

가족이란 무엇인가.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가족이 되려면 피를 나누거나 결혼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의 비혼 출산이 화제가 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세기 초반 성립되어 지난 100년간 정착되었던 근대의 '정상 가족'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는 이른바 정상 가족의 의미를 관객들에게 되묻는다. 영화에서 한 집안에 모여 사는 여섯 명의 사람들은 서로를 '선택'해 함께 살게 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할머니의 아들 내외와 손주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체의 혈연적 관계가 없는 '유사 가족'이다. 영화는 입양이나 동거, 친구 등 혈연 그 이상의 무언가로 맺어진 새로운 개념의 가족 형태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2019년 출간된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는 제도권으로 유입되지 않으며, 남녀라는 도식도 벗어나, 철저히 '동반자'로 이뤄진 조립식 가족을 꾸려나가는 여성 둘의 일상을 가감 없이 담았다. 책은 20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잘 살아 온 두 여성이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살림을 합치고, 고양이 네 마리와 함께 서로에게 적응해가는 과정을 담았다. 2030 비혼 여성이 주 독자가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기혼자와 비혼자를 가리지 않고 널리 환대받으며, 일본과 대만에서도 출간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친구·지인과 함께 거주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비혼 동거 커플, 세어하우스 거주자 등 가구 구성 방식이 전통적 가족 범주를 넘어 다양해지며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이라는 프레임은 이미 낡은 개념으로 전락하고 있다. 2020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자 비율이 69.7%에 달했다. 이처럼 21세기 한국은 '정상 가족'의 관념과 제도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필요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가족 형태의 다양성이 연일 보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혼외 결혼을 통한 출산에 관해서 여전히 관대하지 못하며, 입양을 통한 자녀 양육이 드물고, 외국인과 가정을 이룬 사람을 색안경을 쓰고 본다. 현행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이성 배우자 간 혼인을 거쳐 성립된 전통적 의미의 가족만을 '정상 가족'으로 규정하는 데 머물러 있다. 그런 면에서 여성가족부가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통해 법적인 가족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노인 커플, 친구 그룹까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겠다는 선언이다. 여성가족부는 법률적 혼인제도 밖에 있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정부 정책에서 가족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혼인과 혈연 외에 다양한 가족 구성을 차별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의 개정도 검토된다.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에 '가족 다양성 포용',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여건 보장' 등을 제시했다.

누군가는 혼자 살아야 행복하고, 다른 누군가는 아이 없이 둘이 살아야 행복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여럿이 모여 살아야 만족스러울 수 있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혈연이든, 혈연이 아니든 함께 모여 밥을 먹고 희로애락을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영화 <고령화 가족>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가족이 뭐 대수냐.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이 밥 먹고, 슬플 땐 같이 울고, 기쁠 땐 같이 웃는 거, 그게 가족인 거지."





우리 집으로 숲이 들어왔다 오늘부터 나도 펫 플랜트!

‘코로나 블루’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새로운 취미로 ‘펫 플랜트(Pet Plant)’가 각광받고 있다. 펫 플랜트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식물을 뜻하는 플랜트(Plant)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로 반려동물처럼 곁에 두고 키우는 반려 식물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반려 식물에 대해 알아보자.

PET PLANT

SNS를 통해 확산된 반려 식물

최근 SNS에서 반려 식물이라는 단어가 트렌드 키워드로 부상했다.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서도 작은 다육식물 사진이 올라와 '식물 집사'를 인증했다. 최근 이들은 "생명과 같이 지내면 크든 작든 좋은 변화가 생긴다"는 말과 함께 다육 화분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식물적 삶'에 대한 갈망은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하다. 이미 다수의 트렌드 전문가가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 하나를 '식물'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한 바 있다. 반려 식물, 식물 집사, 펫 플랜트, 플랜테리어, 식물 호텔, 식물 큐레이션 등 식물 관련 새로운 문화와 서비스, 용어 등의 탄생과 함께 인간의 '반려자'로서 자리 잡은 식물. 반려 식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찾는 소소한 기쁨'이나 '힐링 되는 느낌' 등 키우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좋은 감정을 식물을 키우는 이유로 꼽았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집 꾸미기가 유행되었던 것처럼, 굳이 외출하지 않아도 집에서 식물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식물 인테리어를 하는 펫 플랜트가 올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이다. 반려 식물은 자연의 싱그러움을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나 공기 정화, 건강에도 좋다. 또한 반려 식물은 반려동물보다 관리가 수월하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계층이 주목하고 있다.

식물과의 동거가 낯선 당신에게

그렇다면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식물은 무엇일까? 환경에 예민하지 않은 식물이 초보 식물 집사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스킨답서스는 공기 정화 식물로 잘 알려진 식물이다. 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 주방 등에 두기 좋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물을 주면 쉽게 키울 수 있다. 산세베리아도 키우기 쉽고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받는 식물 중 하나다. 산세베리아는 다육 식물의 한 종류로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는 것을 권장한다. 이 외에도 테이블 야자, 고무나무, 스파티필름 등은 처음 키우는 사람이라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다.

식물에 대한 오해와 편견

❶ 물은 많이 줄수록 좋다?

식물을 처음 키우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바로 물 주기이다.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식물에게 물을 매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려동물에게 밥을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처럼, 식물에게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하는 일이다. 과습 시 뿌리가 썩어 식물을 되살리기 어려운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 식물의 잎을 보면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아래쪽 잎이 노랗거나 잎의 테두리가 갈색으로 변한다면 과습의 신호이니 확인하도록 하자. 그렇다면 물을 주는 주기는 언제가 적당할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쑤시개나 꼬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물을 주기 전 흙에 이쑤시개나 꼬치를 꽂았다가 뺐을 때 젖어 있다면 아직 물을 줄 때가 아니다.

❷ 음지 식물은 햇빛을 안 봐도 된다?

초보자의 경우,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에 뒤흔들 자란다는 말을 듣고 음지 식물을 구매해 빛이 안 드는 방에만 방치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음지 식물은 다른 식물에 비해 음지에서 잘 버틸 수 있는 것이지만 아예 빛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햇빛은 필수이다. 그렇다면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실내에서는 식물을 키우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니다. 햇빛 대신 조명으로 부족한 빛을 보충할 수 있다. 일반 실내조명과 달리 식물 LED 조명은 식물에게 필요한 파장의 빛을 구현해 태양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

❸ 물과 햇빛만 신경 쓰면 된다?

물과 햇빛 말고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통풍이다. 적절한 통풍은 공기를 순환해주어 식물 건강에 도움이 되고, 과습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통풍을 잘 안 해줬을 경우, 병충해가 생겨 뿌리가 망가질 수도 있다. 온도와 습도 관리도 중요하다. 실내 식물에게 적절한 온도는 10~25도 사이이다. 식물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곳보다는 일정 온도가 유지되는 곳이 적합하다.





요리로 같이, 가치를 만들다

| 아워키친 Our Kitchen |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하남시 미사강변동로에 위치한 아워키친에서는 매일 사람들이 모여 빵을 굽고 쿠키를 만든다.
베이킹 공방이자 빛나는 학습 공간으로 '맛'과 '배움'이 함께 공존하는 곳. 하남 지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빛나는 학습 공간' 아워키친을 방문해 보았다.



공간을 공유하다

아워키친이 처음 탄생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다. 베이킹·요리 전문가인 최호영 대표는 외부 강의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던 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지극히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공간이 점차 커진 것이 그 출발이었다. 사실 최 대표가 처음 빛나는 학습 공간을 제의 받았을 때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하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이내 자신이 출강을 나갈 때 비어 있는 이 공간을 누군가 유익하게 활용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똑같은 월세, 관리비를 내는데 '같이 공유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락을 했다고 한다.

김문정 평생학습별매니저는 최호영 대표의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에 대한 최 대표의 오픈 마인드' 덕분에 빛나는 학습 공간이 아워키친에 터를 잡을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덧붙인다.

아워키친은 쿠키·마카롱·케이크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방으로 평소 지역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곳이다.

"아워키친에서는 베이킹을 단순한 체험이라기보단 수업처럼 진행을 해요. 완성된 도우에 무늬만을 찍고 장식하는 게 아니라 반죽, 성형부터 데코, 오븐에 굽는 과정까지 전부 함께하는 거죠. 보통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공유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빛나는 학습 공간으로서의 아워키친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저녁 시간에 모여 8주간 프랑스 자수를 배웠고 요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습 활동도 꾸준히 이어 왔다.

"웃짜!웃짜! 챌린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작년 코로나블루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 하루종일 붙어 지내야 했던 엄마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부모와 자식간에 소통을 해보자는 취지의 기획을 했고 이를 온라인 수업을 통해 실행을 했어요." 최호영 대표가 컨셉을 잡고 김문정 평생학습별매니저가 아이디어를 보탠 이 프로젝트에서 '거실로 가는 소풍'은 특히나 큰 호응을 얻었다. 도시락 메뉴를 배우고 각자 집에 있는 소풍용 소품을 꺼내 거실로 나들이를 나온 듯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 '나의 감정을 요리재료로 도마 위에 표현해 보기' 등을 통해 말로 하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1인당 5000원을 내고 음식 재료를 공동구매로 구입한 뒤 그걸 n/1로 나누어 비법 소스를 배워가면서 반찬을 직접 만들어 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참여한 지역 어머니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았다. 아워키친을 통해 다양한 학습 활동들이 파생되고 이로 인해 나눔 공동체 활동이 더 활발히 일어나길 바란다는 김문정 별매니저의 소망을 최호영 대표가 이어 받는다. "빛나는 학습 공간을 통해 저 역시 하남시와 지역민들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어요. 하남시에도 이곳이 더 많이 알려졌고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잘해야겠다는 다짐도 더 단단히 하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나 행복하고 즐거운 학습 활용 공간인 아워키친을 많이 찾아주세요."

아워키친 운영 현황

- **공간 운영 시간:** 예약제 운영
매일 오전 11:00~18:00
- **공간 위치:**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72
에스비비즈타워 607호
- **수용 가능 인원:** 최대 12명
- **대여 가능 장비:** 테이블 및 각종 조리 도구
- **이용 문의:** 010-8380-0069

※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든든한 이웃 경찰

| 이대형 하남경찰서장 |

올해 들어 하남 경찰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 세차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 조직의 대대적 변화에서부터 하남경찰서의 숙원이었던 2급지에서 1급지로의 승격까지,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대형 하남경찰서장은 이를 권한보다는 책임이 막중해지는 변화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에 치안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 해결적, 선제적 치안 활동을 펼쳐 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권한이 확대된 경찰이 아닌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경찰로 다가가겠다는 의미. 경찰대를 5기로 졸업하고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안보기획관리과장 등을 거쳐 지난 1월 하남경찰서에 부임한 그를 만나 보았다.



이제 곧 부임 100일을 맞습니다.

경찰청 안보기획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25일 역사 깊은 청정도시 하남경찰서장으로 부임했고, 5월 4일이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 하남 경찰과 시민의 숙원이었던 경찰서 급지 상황이 지난 3월 30일 이뤄져 기존 2급지에서 1급지 경찰서로 상향되었지요. 이는 곧 하남시가 인구 증가를 비롯한 치안 수요에 다양한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또한 국사수사본부 출범,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 등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서 있는 만큼, 하남 경찰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이에 '시민의 안전'이 우리 경찰의 존재 이유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면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프로파일링(Geo Pro System) 과학적 분석을 통한 선제적 경찰 배치로 예방적 치안 활동에 집중하고, 중요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모든 경찰력 총력 대응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침입 절도,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한 주취 폭력 등 틈새 범죄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남경찰서가 올해 가장 중점을 둔 치안 정책은 무엇인가요?

범죄와 위험에 취약한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배려입니다. 이는 경찰과 시민 모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학대 등 위기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 및 보호하고,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 시설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등 여성 불안 환경을 점진·개선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3불(불편, 불안, 불만) 없는 하남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후배 경찰들에게 강조하는 치안 철학이 있다면요?

개인적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특히 아동, 여성,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소위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선 내 가족의 일처럼 정성을 다하고, 형식화된 법 집행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마음속 눈물까지도 닦아주는 '따뜻한 공감경찰'이 되어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주민과 한층 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튼튼한 이웃 경찰'의 기본은 경찰과 시민 상호 간 협력이 제일 중요한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뿐만 아니라 전 하남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순찰 주체가 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문제 해결형' 방향으로 순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사소한 사고 등의 징후가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형 순찰이 예방 치안을 통한 든든한 이웃 경찰, 안전한 하남시의 뿌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와 책임이 더욱 커졌는데,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는?

수사권의 주체로서 권한보다는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이미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한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청렴을 넘어 이제는 공정한 절차 또한 시대적인 정신이 되고 있기에, 청렴과 공정한 절차 즉, 공렴(公廉)한 모습으로 누구나 경찰의 수사 업무에 공감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하남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30만 하남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문제 해결형 순찰이 예방 치안을 통한
튼튼한 이웃 경찰, 안전한 하남시의 뿌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언택트 시대의 여행법, ‘차박’ 캠핑 떠나볼까?

‘언택트 시대의 여행 방식’ 하면 단연 ‘차박(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르는 여행)’이다. 국내 최대 차박 커뮤니티로 꼽히는 네이버 카페 ‘차박캠핑클럽’의 회원 수가 1년 사이에 10만 명이나 늘어난 것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열풍인지 알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여행의 낭만은 포기하지 않는 차박 캠핑에 대해 알아보자. 언택트 시대에도 힐링은 필요한 법이니깐.

새로운 캠핑 트렌드 ‘일상 속 차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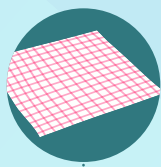
교통과 숙박을 모두 차에서 해결하는 ‘차박 캠핑’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트렁크를 그늘막 삼고 차를 텐트 삼아 즐기는 이 캠핑 방식은 예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즐기는 차박은 접근 방식부터 다르다. 우선 자동차를 세워두는 장소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새소리, 벌레 소리 가득한 월든 호숫가 같은 자연이 아니더라도, 차를 주차할 수 있으면 어디든 가능하다. “늦게까지 공연 보고 차박할래?”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통한다. 말 그대로 ‘일상 속 차박’인 것이다. ‘노지 차박’, ‘도시 차박’에서 시작한 이러한 트렌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간에 대한 갈증이 부추겼다. 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이 차를 이동 수단을 넘어 공간으로서 주목하게 된 것이

다. 이런 변화에 발맞춘 자동차 회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도 이를 거들었다. 차박, 차크닉 등 자동차 관련 레저 활동을 차량 판매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에어매트나 카텐트 등 차박을 위한 다양한 액세서리도 판매하고 있다. 일부 전기차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모드’를 지원해 차박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고생길 아닌 여행길을 위한 차박 기본 아이템

차 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스텔스 차박’이나, 텐트나 쉼터를 연결해 오토캠핑 분위기를 내는 ‘도킹 차박’이나에 따라 필요한 캠핑 장비는 천양지차다. 하지만 차박 종류에 상관없이 필요한 기본템들이 있으니, 바로 다음의 세 가지다.





평탄화 작업을 위한 매트

차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한 '평탄화 작업'은 모든 차박에 필수다. 차박용 평탄화 작업이란 좌석과 트렁크의 높낮이 차이로 인한 경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잘 때 몸이 배기거나 아래로 쏠려 매우 불편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트렁크 쪽에 발포 매트(여러 겹 쌓아 좌석과 트렁크 쪽의 단차를 줄이고 그 위에 에어매트를 한 겹 더 깔면 된다. 만약 차량 내 공간이 부족하다면 차량용 놀이방 매트(이동용)를 이용해 1열과 2열 사이의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최근 출시된 차량은 뒷좌석을 완전히 앞으로 눕힐 수 있는 풀 플랫 시트인 경우가 많다. 그런 차량은 에어매트나 자충매트(자동충전식 캠핑 에어매트)를 깔아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충전식 LED 랜턴

조명은 야외에서의 생존과 낭만을 좌우한다. 다만 아무리 밝은 조명도 하나만으론 부족할 수 있으니 여러 개를 준비하자. 밝고 지속성이 긴 충전식 랜턴을 메인으로 걸어두고, 보조 랜턴을 곳곳에 배치하는 방법이 좋다. 랜턴을 적절히 배치하면 날벌레 퇴치에도 도움이 된다. 단, 화재나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량 안에서 가스나 휘발유를 사용한 랜턴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열이 발생하지 않는 LED 랜턴을 추천한다.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충전식 리튬배터리 내장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LED 수명은 약 2만 시간으로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고 캠핑 외에도 수유등, 독서등, 무드등 등 일상에서도 다채롭게 사용 가능하다.



타프 또는 쉼터

차박에도 그늘이 필요하다. 일반 텐트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타프나 쉼터를 이용해보자. 햇볕이나 비, 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물론 캠핑의 감성을 더해준다. 참고로 타프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천막을, 쉼터는 바닥이 없는 텐트를 뜻한다.

이 밖에도 '무시동 히터(차 시동을 켜지 않고 구동하는 히터)'와 '파워뱅크(고용량 배터리)' 등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한 캠핑을 위한 장비들이 다양하다. 하지만 이제 막 차박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장비 욕심을 부리기보단, 간소하게 즐기면서 캠핑 노하우를 익혀 가길 권한다. 장비에 대한 부담 없이 가볍게 떠나는 차크닉(차를 활용한 피크닉)으로 일단 시작해봐도 좋겠다.



LIVE

내 손안의 쇼핑 방송, ‘라방’ 전성시대

온라인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라방’이 대세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강자는 물론 쿠팡, 티몬, CJ, 신세계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바야흐로 소비자들이 뉴 미디어를 통해 직접 판매자를 만나는 시대. 거부할 수 있는 흐름이 된 새로운 소비 트렌드, 라방의 인기 비결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주문 완료!!

 주문 완료!!

 주문 완료!!

 주문 완료!!

실시간 소통 가능한 예능형 쇼핑, ‘라방’

‘모든 기업은 미디어 기업이다.’ 브랜드 저널리즘을 의미하는 이 말이 새삼 와닿는 요즘이다. IT, 유통업계에 부는 라이브 커머스 열풍 때문이다. 라이브 커머스는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을 뜻한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활용하기 때문에 흔히 ‘라방’이라고 불린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 커머스는 올해 시장 규모가 3조원에 달하며, 2023년에는 8조~10조원까지 이를 전망이다. 언택트 소비 시대에 막 활성화된 시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성장세다. 라이브 커머스가 이토록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품에 대한 궁금증도 업

체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지루한 과정 없이,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쇼핑의 재미를 한층 높인 것도 매력이다. 인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섭외해 재미 요소를 극대화한 ‘예능형 라방’이 그 예. 상품을 사지 않으면서 ‘재미’로 라방을 켜놓는 사람도 많을 정도다.

라방 입장에선 TV홈쇼핑을 하려면 지켜야 하는 여러 의무에서 자유롭다는 이점도 있다. 가령 TV홈쇼핑은 5년마다 정부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공적 기능 확대 의무가 있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송 송출 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강자는 물론 쿠팡, 티몬, CJ, 신세계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너도나도



라이브 커머스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규제 사각지대, 소비자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시급

하지만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도 늘고 있다. 특히 규제가 미비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것이 큰 문제. 라이브 커머스는 TV홈쇼핑과 형식이 비슷하지만 통신 매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송법상 심의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돼 상품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쉽게 말해, 네이버 '쇼핑라이브' 라방을 보고 산 상품에 이상이 있어도 네이버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 방송에 거짓·과장하는 내용이 나와도 이는 소비자와 판매 업체 간의 문제일 뿐이다. 규제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소비자들이 떠안는 구조라

고 할 수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건을 살펴 본 결과, 30건이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네 건 중 한 건이 거짓·과장 광고인 셈이다.

이처럼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한편에선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규제로 인해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이 위축될 수 있으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소비자의 혼란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규제는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기회복을 위한 한 그릇 보약 종합 영양 선물 세트 ‘바지락’

크기는 작지만, 원기 회복에 탁월한 바지락은 고소하면서도 감칠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한식과 양식의 단골 메뉴다. 가정의 달 5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조개 바지락으로 건강한 식탁을 채워보자.





호미에 부딪힐 때 '바지락, 바지락'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바지락은 껍데기까지 버릴 것이 없는 영양 덩어리다. 바지락의 효능은 마치 물안개처럼 뽀얗고 개운한 특유의 국물 맛에 압축된다. 예로부터 간이 약해 쉽게 피로하고 황달기가 있는 경우 바지락 국을 찾았으며 손톱의 흰 반점이 두드러질 때나 숙취가 심할 때에도 바지락 국을 끓여 먹곤 했다. 동의보감에도 바지락은 '술독을 풀어서 술에 취한 것을 깨어나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간 기능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타우린이나 해독 작용을 하는 베타인과 소위 MSG라 불리는 글루탐산, 세포 회복을 돕는 메티오닌 등의 핵산류가 어우러져 보여주는 효과다. 바지락에 풍부한 타우린 성분은 간 기능에도 좋지만 심혈관 질환을 막아주고 지방 분해나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담습 분비를 촉진시키고 간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바지락은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품으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기력 회복에 좋다. 특히 혈액 내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인 철은 빈혈을 예방해 폐경기 여성과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다. 헤모글로빈이 합성되는 것을 돕는 비타민 B12 역시 다량 들어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연도 풍부하며 아연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인 백혈구 생성을 도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바지락의 칼로리는 100g 기준 60kcal 정도로 낮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며, 바지락에 들어 있는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은 체내 단백질 합성을 도와 근육량을 늘리는 효능이 있어 성장기 어린이들이 먹으면 좋다. 그 외에도 근육 경련을 막아 눈 떨림 등을 막아주는 마그네슘이나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 인, 구리 등도 풍부해 '종합 미네랄제'라 할 수 있다.

신선한 바지락 고르는 법

바지락은 껍데기가 두껍고 볼록한 것이 좋다. 표면에 푸르스름한 빛이 돌며 거칠고 윤기가 나는 것이 신선한 바지락이다. 채취한 지 오래된 것은 탁한 갈색으로 변한다. 익혔을 때 껍데기가 열리지 않으면 죽은 바지락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 껍데기가 깨진 것도 요리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지락 크림 파스타

재료

바지락 400g, 새우 살 8마리, 양파 60g, 표고버섯 5개, 마늘 5알, 베트남고추 2개, 쪽파 5줄기, 화이트와인 50ml, 우유 150ml, 생크림 250ml, 바질가루 2꼬집, 파마산 치즈, 소금, 후추, 스파게티 면 200g

레시피

- 1 양파와 말린 홍고추는 잘게 다지고 마늘과 표고버섯은 슬라이스한다. 쪽파는 송송 썬다. 파스타 면은 물 1.5L에 소금 한 큰술을 넣고 삶는다(넓은 면을 사용할 경우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는다).



- 2 팬에 올리브 오일을 약간 두르고 양파와 마늘을 볶아준다. 마늘 향이 올라오면 말린 홍고추를 볶다가 표고버섯에 소금을 살짝 넣고 볶는다. 표고버섯의 숨이 살짝 죽으면 바지락과 화이트와인을 넣고 볶아 알코올을 날린다.



- 3 바지락이 입을 하나 벌리기 시작하면 새우 살을 넣고 볶다가 우유를 넣고 끓여오르면 생크림을 넣는다.



- 4 생크림이 끓으려고 하면 삶은 파스타면을 넣은 뒤 파마산 치즈를 듬뿍 갈아 넣고 마지막으로 바질가루, 소금, 후추를 넣어 마무리한다. 쪽파는 취향대로 곁들인다.



TIP

바지락 해감 이렇게 하세요

바지락과 같은 조개류는 보관 전 반드시 해감이 필요하다. 적절한 해감 염도 비율은 보통 바지락 1kg에 굵은 소금 1큰술 정도. 소금을 골고루 잘 푼 다음에 바지락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바지락을 소금물에 넣어 어두운 곳에 1시간 정도 놓아두면 조개 안에 있는 흙과 모래 등이 빠져나온다. 이렇게 30분만 해감해도 미세 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된다. 해감 후 입을 벌리지 않은 조개는 죽은 것으로 세균이 번식했을 수 있기 때문에 버리고, 물로 여러 번 헹구야 이 물질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다.

놀이터와 도서관이 만난

| 숲과나무작은도서관 |

놀이터와 도서관. 먼 사이처럼 느껴지는 두 단어가 만나는 곳이 있다. 하남시 신장로에 위치한 숲과나무작은도서관이다. 그리 크지 않은 이곳은 어느 때엔 조용한 책 세상이었다가, 어느 때엔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한다. 공간 대신 시간을 나눴기에 가능한 일. 그래서인지 새들이 모여 앉는 나무, 그 나무들이 함께 자라는 숲처럼 이곳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쉬어 간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100m 북카페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했습니다.

책과 놀이, 배움이 있는 도서관

‘도서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정숙’이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는 정적인 공간인 탓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개관한 하남시 숲과나무작은도서관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테이블과 누워서 뒹굴 수 있는 폭신한 매트가 함께 있어 도서관과 실내 놀이터 중간쯤 되는 풍경이다.

“저희 도서관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시간을 나눠서 쓰고 있어요. 책을 읽는 시간, 떠들며 놀아도 되는 시간을 나누면 작은 공간이라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러한 구성은 숲과나무작은도서관의 설립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된다. 2010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온 장신자 관장이 센터 아동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던 중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정해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공간이 구성돼 있어요.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해서 늘 아쉬웠죠. 게다가 그곳은 센터에 등록한 아이들만 올 수 있잖아요.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센터의 규칙적인 프로그램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언제





든 편하게 이용하려면 도서관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도서관인 까닭에 이곳은 초기부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북마스터’라는 독서프로그램도 그중 하나. 아이들이 책을 읽고서 ‘북마스터’라는 개인 독서 기록장에 한 줄 평을 남기면, 이를 토대로 관장과 부관장 두 사람이 간단한 독서 지도와 맞춤법 검사를 해준다. 독서 활동과 국어 교육을 연계한 방식인 것이다. 딱 한 줄만 쓰게 한 이유는 아이들이 독서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 번은 ‘하남시민 구성원을 위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이곳에서 열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앙상블 연주를 감상하고, 관객과 앙상블 팀이 함께 연주하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평소에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볼 기회가 없던 아이들이 그냥 정말 재밌어 했어요.”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새로운 체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싶다는 숲과나무작은도서관. 물론 배움에만 치우치지 않고 마음껏 노는 시간도 유지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빛나는 공간’

숲과나무작은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하남시의 ‘빛나는 학습 공간’을 신청해 선정된 것도 그 실천이다. ‘빛나는 학습 공간’은 지역 내 시민 편의 시설 및 공동시설을 학습 공간으로 개방,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마을 단위 커뮤니티 공간이다. 빛나는 학습 공간으로 선정되면 129개의 다양한 별자리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작은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작은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빛나는 공간으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진 못했지만, 서두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쓸모 있는 공간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부터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당장 5월부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세미 뜨개질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아직은 시작 단계인 만큼 일일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고, 경험이 쌓이면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작은도서관을 시작하기 전에 이메일 보내는 방법도 모르는 전업주부였어요. 기초적인 것부터 배워 가면서 하고 있죠. 현재 하남시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에 파견하는 순회 사서의 도움을 받아 도서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있는데, 그동안 잘 몰라서 했던 불필요한 수고들도 많더라고요.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 날마다 새롭습니다.”

자칭 ‘도서관이 키운 사람 1호’ 이선희 부관장의 말이다. 전문 사서의 조언과 관장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모 사업에도 적극 지원 중인 숲과나무작은도서관. 개관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하고 깔끔한 운영이 놀랍다. 앞으로도 그 기세를 이어가 모두를 위한 놀이터이자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길 응원한다.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아하'

구성. 뽀작가







가정의 달 특집 <주현미 콘서트>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 <짝사랑>, <잠깐만> 등 제목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주현미의 수많은 히트곡. 그리고 객석을 사로잡는 맛깔스러운 음색과 창법. 오랜 세월 받아온 사랑만큼 정성껏 마련한 주현미의 음악 세계가 5월 햇살 속에 펼쳐진다.

- 일시: 2021. 5. 1(토) 오후 5시
- 장소: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티켓: R석 7만원, S석 5만원
- 할인: 하남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 10% 외
- 입장: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 문의: 031-790-7979

※ 정부방역지침에 의해 '동반자 외 한 좌석 띄어 앉기' 객석제로 운영됩니다.



명창 안숙선의 <춘하추동 명인명창>

1979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하여 타고난 성음과 뛰어난 연기력을 통해 주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 시대 최고의 명창으로 평가받는 안숙선의 무대가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예능보유자'이기도 한 이 시대가 인정한 최고의 명창 안숙선의 무대를 통해 소리꾼과 관객이 하나 되어 한바탕 울고 웃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일시: 2021. 5. 26(목) 오후 8시
- 장소: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티켓: 전석 5000원(문화가 있는 날 특별가)
- 입장: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 문의: 031-790-7979



경기도 문화의 날 하남 시내버스 타고 문화여행 가자 <덕풍트롯왕>

덕풍 전통시장에서 국악 및 트로트 가수의 공연이 함께하는 신명나는 축제가 열린다. 덕풍시장 소상공인 및 이용 시민 대상 가수왕 선발대회 등 즐거운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 일시: 2021. 6. 30.(수) 오후
- 장소: 덕풍 전통시장
- 문의: 031-790-7970

※ 사정에 의해 장소/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작은 미술관 5월 전시 일정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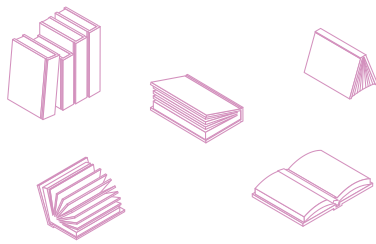
신미경 개인전 <꿈을 따라 민화 속으로...>展

365일 전시가 있는 공간 <작은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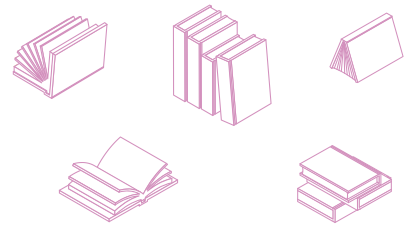
어느덧 봄의 끝자락에 서서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누리지 못한 지난 계절의 아쉬움을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보며 한껏 누려보길 바란다.

- 일시: 작가별 일정표 참조
- 장소: 스타필드 하남점 웰컴홀 B1
- 티켓: 무료
- 입장: 전연령
- 문의: 031-790-7929

	전시명	기간	장소	관람료
1	신미경 개인전 <꿈을 따라 민화 속으로...>	4. 23.(금) ~ 5. 6.(목) 10:00~22:00	스타필드 하남점 웰컴홀 B1	무료
2	김석은 개인전 <바다 위 나무 가족이야기>	5. 7.(금) ~ 5. 20.(목) 10:00~22:00	스타필드 하남점 웰컴홀 B1	무료
3	이민 개인전 <탐라를다99>	5. 21.(금) ~ 6. 3.(목) 10:00~22:00	스타필드 하남점 웰컴홀 B1	무료



도서관
프로그램



하남시립도서관
5월 신규 문화 프로그램 안내

도서관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 기간	장소
미사	지브러시로 만들어보는 아트토이	일반	5. 13. ~ 7. 1. 매주(목) 14:30 ~ 17:30	메이커스페이스
	아트 주얼리의 세계	일반	5. 10. ~ 5. 17. 매주(월) 11:00 ~ 12:30	메이커스페이스
	영어 그림책으로 놀자 A반	초등 1 ~ 2학년	5. 14. ~ 6. 4. 매주(금) 16:00 ~ 16:50	문화교실
	영어 그림책으로 놀자 B반	초등 3 ~ 4학년	5. 14. ~ 6. 4. 매주(금) 17:00 ~ 17:50	문화교실
나들	김성중 소설가와 함께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코로나 19, 이야기와 연결하다>	일반	5. 10. ~ 7. 12. 매주(월) 10:00 ~ 12:00	온라인플랫폼 (zoom)
	우리 마을 그림책 만들기	초등 4 ~ 6학년	5. 20. ~ 7. 22. 매주(목) 15:30 ~ 17:30	나들도서관 문화교실
	이야기가 있는 미술여행	초등 2 ~ 3학년	5. 7. ~ 5. 28. 매주(금) 15:00 ~ 17:00	온라인플랫폼 (zoom)
	나의 이야기가 책이 되는 순간	일반	5. 13. ~ 7. 15. 매주(목) 19:00 ~ 21:00	온라인플랫폼 (zoom)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중학생	5. 15. ~ 7. 17. 매주(토) 14:00 ~ 16:00	온라인플랫폼 (zoom)
세미	상상하고 표현해요! 그림책 무용놀이!	5 ~ 8세	5. 3. ~ 5. 24. 매주(월) 16:00 ~ 16:40	온라인플랫폼 (zoom)
덕풍	초등, 영어 동화책 읽기	초등 3 ~ 4학년	5. 6. ~ 6. 24. 매주(목)	덕풍도서관 문화교실

신청 기간 및 방법: 각 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문의: 미사도서관 ☎031-790-6884 / 디지털도서관 ☎031-790-6811

나들도서관 ☎031-790-6887 / 세미도서관 ☎031-790-6804 / 덕풍도서관 ☎031-790-6959

※ 사정에 따라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나 재료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

일반

“다이아몬드에는 종교라는 것이 없지. 천년을 가도 만년을 가도 영원히 청춘인 돌.”

박완서 작가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다. 그러나 작가의 작품은 ‘영원히 청춘’이다. 세월이 흘러도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히 빛나며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작품을 누구나 한 권쯤은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박완서 작가의 산문 660여 편 중 베스트 35편을 선별하여 엮어낸 책이 있다. 이 책을 통해 소설가 박완서가 아닌 수필가 박완서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았으면 한다.

박완서 / 세계사 / 2020



2030 축의 전환

일반

부제: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

“1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없다!”라는 표지의 문구가 눈길을 끈다. 저자는 경제학, 지정학, 사회학을 넘나들며 10년 후, 2030년을 통찰한다. 세계의 중심은 대서양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젊은 세대에서 나이든 세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이 미래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한다. 저자가 말하는 8가지 거대한 물결이 앞으로 10년 후를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마우로 기엔 / 리더스북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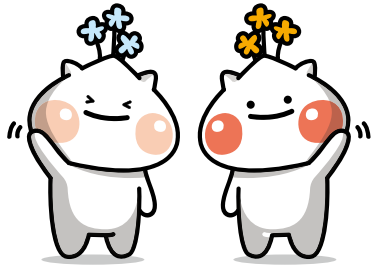
세상에서 제일 달고나

어린이

『마당을 나온 암탉』을 쓴 황선미 작가가 새롭게 선보인 신작으로 전염병으로 내내 집에만 있다가 드디어 학교에 가게 된 새봄이와 장갑분 할머니의 특별한 학교생활이 재미있는 만화와 함께 펼쳐진다. 새봄이와 엄마, 장갑분 할머니 각자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달고나만큼 달콤한 이야기에 푹 빠져들기를 바란다.

황선미 / 주니어김영사 / 2020

하남 시즌 주요 뉴스



하남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백신 접종 적극 홍보'

코로나19 방역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3차 회의가 지난 8일 중 (ZOOM)을 이용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하남시장을 비롯해 김영철 민간공동위원장, 최중운 국회의원, 방미숙 시의회위원장, 이대형 하남경찰서장, 유병욱 하남소방서장,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장, 김영돈 육군 제3879부대 부여단장, 최보을 한양대 의대 교수 및 11개 분과 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구성수 보건소장은 '하남시 코로나19 현황과 백신 접종 계획'을, 최보을 한양대 교수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에서 구 소장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인 11월 전까지 전 시민의 70%에 해당하는 21만 명을 접종할 계획"이라며,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에서 운영되는 예방접종센터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진 회의는 ▲현 코로나19 상황인식의 객관적 공유 ▲시의 백신 접종 계획 ▲분과위원회 대응과정에서 보완 사항 및 건의 사항 등을 안건으로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분과위원회 다양한 대응 방안 및 의견이 쏟아졌다. 그 밖에도 봄철 활동 증가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 해소, 공공기관 민원 대기실 거리 두기 강화 등 분과위원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됐다. 특히 모든 분과위는 공통적으로 전 계층·직종 등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백신의 안전성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을 전개해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하남시장은 "일상의 피로와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방역 긴장감을 유지해 주셨으면 한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안전정책과 031-790-5801

2

민관 협력 '집수리 하남?!', 올해 1호 가정 주거 환경 개선



하남시는 취약계층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 '집수리 하남?!' 올해 1호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집수리 하남?!'은 사회 공헌 활동을 실시하는 기업과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원도심 저소득 취약계층을 연결해 무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집수리는 지난 2일 협약 기관인 현대건설과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하남시청 직원 등 10명이 참여해 신장동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습기 가득한 집 내부 곰팡이를 제거하고 오래된 도배와 장판, 낡은 가구 등을 교체하는 등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자녀가 있어 더욱 지원이 절실했던 이웃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더 많은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롯데건설·신세계건설과 함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현대건설과도 협약을 체결, 건설사 3곳과 함께 '집수리 하남?!'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려고 한다.

건축과 031-790-5257

3

방역 수칙 잘 지키는 '안심식당' 확대 지정

하남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을 확대 지정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00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도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안심식당은 ▲집계, 국자 등 덜어먹기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업소 소독 및 손소독제 비치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1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등 생활방역을 실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시가 현장 확인을 거쳐 지정한다.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이 대상이며, 카페·디저트 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의 영업장은 제외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고 위생물품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하남시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도 지정 현황이 공개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정에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하남시 식품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심식당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침체된 외식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위생과 031-790-5157

4

올해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하남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했다.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3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 기간(4주 ~ 8주 이상)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자전거 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도로관리과 031-790-5295

5

'교통환경, 더 안전하게'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비



하남시는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은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도로 노면표시, 표지판, 신호기 등이 해당된다. 시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이 훼손되거나 노후되어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운전자의 부적절한 판단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일제 정비를 추진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도로 노면표시의 경우 하남대로, 신평로 등 총 13개 구간 약 19,800㎡ 면적에 재 도색을 실시하고, 교통신호기 313개소, 각종 표지판 등도 모두 점검해 정비할 방침이다.

시 교통정책과장은 "노후된 교통 시설물을 지속 정비하고 부족한 시설은 확충해 안전한 교통 환경 제공은 물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정책과 031-790-5047

6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나선다

하남시는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 등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시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소규모 어린이집(장정어린이집 포함),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330개소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와 온도, 습도를 현장에서 측정 후 시설 관리자에게 결과를 안내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 및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설명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정책과 031-790-5141





하남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5명 위촉



하남시의회는 지난 3월 17일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 5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대표위원인 오지훈 의원을 비롯해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신동민 회계사,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전략기획팀장, 황경선 전)농협중앙회 지부장이 선임됐다. 이들은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

간 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방미숙 의장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산 집행에 대한 법령 준수 및 회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재정집행 실태 감독을 통해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책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소식은 홈페이지
(www.hanamcitycouncil.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호선 연장 하남선 완전 개통... 하남 '지하철 시대' 활짝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인 하남선이 드디어 3월 27일 완전 개통했다. 이날 방미숙 의장을 비롯한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새벽 5시 32분 하남검단산역에서 시민, 내빈, 철도 관계자 등과 함께 첫 열차를 시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은 “하남선 2단계 지하철 5호선 개통을 환영한다”라며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 노선이 없었던 30만 하남 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됐다”고 본격 지

하철 시대 개막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하남선은 기존 지하철 5호선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하남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7.7km 노선이다. 지난해 8월 1단계 4.7km 구간(상일동역~하남풍산역)이 먼저 개통된 데 이어 3월 27일 3km 구간(하남풍산역~하남시청역~하남검단산역)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됐다.

학대 피해 아동의 일시 위탁을 위한 위기 아동 보호 가정 모집

위기 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

○ **보호 대상:** 0~2세 학대 피해(의심) 아동

○ **신청 방법:** 4월 이후 일시보호 기간(최대 6개월) 동안 보호

○ **기본 요건:** 안정적인 소득, 종교 자유 인정,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 60세 미만, 범죄 전력 및 질환 미해당, 보호 아동 포함 자녀 수 3명 이하

○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일반가정 위탁 경력 3년 이상 등 일정 자격 충족

※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예비보호 가정 선정

○ **재정 지원:** 아동 보호 시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 비용 지원

※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등 최대 190만 원 상당 지원(보호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문의: 여성보육과(031-790-5848)

하남시 보건소, 「비대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금연 희망자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 **내용**

- 1차 금연 상담 및 등록(보건관리자 또는 사업장 담당자가 일괄 신청)
- 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 금연키트(금연보조제 등) 사업장으로 발송
- 9회 이상 전화 상담을 통한 지속적 관리, 문자 서비스 제공
- 6개월 금연성공자(코티닌 측정 확인) 기념품 증정

문의: 미사보건센터 1층 금연클리닉 상담실(031-790-6168)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안내

○ **신고 대상:**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

○ **신고 기간:** 2021. 5. 1. ~ 5. 31.

○ **납부 기간:** 2021. 5. 1. ~ 5. 31.

○ **납세지:** 2020. 12. 31.(납세 의무 성립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신고·납부 방법**

- 전자 신고: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http://www.wetax.go.kr>)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 합동신고센터(시청 민원동 2층) 중 1곳 선택하여 방문 신고·납부

※ 단, 시청 방문은 모두채움 대상자에 한함

문의: 세정과(031-790-6183)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자동차 보유 및 운행 시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

- 미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인 I	대물	대인 I	대물	대인 I	대인 II	대물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1일째부터 매일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금액	20만원	10만원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 도로 위 무보험 자동차 운행시 형사처벌 대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 무보험운행범죄 1건인 경우 범칙금으로 대체

-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8조, 같은법 제46조 제2항

※ 무보험 운행 범칙금

범칙행위	범칙금액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건설기계,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무보험 운행	4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사업용 자동차 무보험 운행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륜자동차 무보험 운행	10만 원		

문의: 차량등록과(031-790-6196)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 무담보, 무보증 정책서민금융 대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 **지원 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 **자금 용도:** 운영 및 시설 자금 등

○ **대출 금액:** 2000만 원(회 1000만 원)

○ **금리:** 연 3.5%(기준금리 4.5%)

○ **대출 기간:** 5년 이내

○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미소금융경기하남법인

하남고용복지+센터 3층(031-730-7081~2),

하남시청 본관 지하 1층(031-794-2091~2)

종교계와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 강좌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

- **서비스 제공 사이트:**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유튜브 채널
- **서비스 기간:** 2021. 3. 18.(목) ~ 5. 31.(월)
- **서비스 내용:**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강의: 임동환 교육학 박사)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함, 마음의 불안정, 상한 마음의 원인과 치유책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치유 강의
- 1강 ‘상한 마음의 증상’: <https://youtu.be/mCaslxsB6ts>
2강 ‘상한 마음의 원인’: <https://youtu.be/xfsx7dvcXN4>
3강 ‘마음 치유하기(용서)’: <https://youtu.be/rWKAYdkO2vY>

문의: 하남시자살예방센터(031-794-6508)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 부과

-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1.5. 11.(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 부과된다.
- **부과 근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 **시행일:** 2021년 5월 11일(화)부터
- **단속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 **과태료 부과**

구분	도로	현행	변경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일반도로	40,000원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80,000원	120,000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일반도로	50,000원	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90,000원	13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만 원의 과태료 추가 부과

문의: 교통정책과(031-790-6293)

수기 명부에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세요

-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 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세요.
- **사용 목적:** 수기 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 **사용 방법:** 네이버, 카카오, PASS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발급·확인

문의: 정보통신담당관(031-790-6080)

잡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미수령 환급금 확인 및 신청

1.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 환급금 간단 조회
- 주민/법인번호 입력 시 미지급 환급 조회 가능
- (환급 건 존재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환급 신청 가능
2.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채널명: 하남시지방세환급) 추가, 채팅하기(댓글X) 후 이름/생년월일/본인명의로 계좌번호 입력 시 환급 신청 가능
3. ARS 환급 신청 서비스
- 031-790-6200으로 신청(1번→2번, 과오납 환급 신청)
4. 전화 신청
- 세원관리과(031-790-5816)에 본인 환급금 문의 및 신청
※ 환급금 양도, 현금 수령 및 기타 문의: 031-790-5816(세원관리과 정형진)

문의: 세원관리과(031-790-6186)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안내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패혈증, 수막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 예방접종 실시

구분	내용
대상	만 65세 이상 미접종자 (1956.12.31. 이전 출생자) - 65세 이상 연령에서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한 경우 추가 접종 불필요 - 65세 미만 연령에서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한 경우, 이전 접종으로부터 5년 경과 및 65세 이후 PPSV23 1회 접종
기간	2021년 1월 ~ 12월
장소	전국 지정 의료기관(주소지 무관)
백신 및 횟수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무료 접종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타사항	- 지정의료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 지정 의료기관 검색: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하남시보건소 홈페이지 - 과거 접종 여부 확인: 보건소 예방접종실 (☎ 031-790-6560),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금기사항	- 백신 함유 성분이나 접종 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중증도 이상의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 연기

문의: 보건소 예방접종실(031-790-656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 상담 신청 모집

- **대상:** 관내 청소년(10세 ~ 18세)과 부모가 함께 참여 가능한 가족
- **일정:** 2021년 5월 ~ 6월 매주 토요일(총 4회기)
※ 신청 후 날짜 협의
- **내용:** 부모-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위기 가정을 위한 심도 있는 가족 상담 진행
- **강사:** 교수 김중희(전 서울여대 외래교수 / 상담심리학박사)
- **장소:**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남시 조정대로 111, 청소년수련관 2층)
- **신청 기간:** 2021. 5. 1.(토) ~ 5. 31.(월) / 선착순 접수
※ 선착순 접수로 인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접수
☎031-790-6680

문의: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790-6680)

디지털성범죄예방 영상 공모전 디지털 필드의 UCC스타!

- **접수 기간:** 5. 10.(월) ~ 6. 25.(금)
- **공모 주제:** 안전한 디지털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SNS, 온라인 수업, 채팅앱 사용 등) /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견 시 대처법 (불법촬영, 유포, 성적 괴롭힘, 텔레그램, N번방 등)
- **공모 대상:** 하남 시민 누구나
- **공모 방법:** 5월 10일 이후 영상을 개인 계정 유튜브에 업로드 후, 참가 신청서, 원본 파일을 이메일(friends-1213@hanmail.net)로 접수(홈페이지 <http://hanamsvrc.or.kr> - 공지에서 다운 가능)

문의: 하남성폭력상담소(031-796-1213)

태양광 불법 건축물 사례 및 처벌 안내

유형 9: 태양광 발전설비(태양광 패널 등) 설치 기준 위반

○ 태양광 발전이란?

- 여러 개의 태양전지들이 붙어 있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여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법

※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자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제15조 및 [별표2] 참조

○ 건축법 관련 태양광발전 설비 구조물 설치 시 절차 안내

- 높이 5미터를 초과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우리시 건축과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

: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배치도 및 구조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

○ 안전기준 검토 사항

-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수직·적설·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검토 확인 필요

- 또한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 설비 기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벌칙

-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건축과(031-790-6395)

하남시 사회적경제기업 '가치온' 전시 홍보관 설치

- **제작 배경:** 하남시사회적경제기업 '가치온' 전시 홍보관 설치 통해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 홍보 및 판로개척
- **전시 기간:**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전시 장소:** 본청 지하 1층
- **제작사:** 관내 협동조합인 하남시소상공인가구협동조합
- **활용 방안:** 하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
- **추후 계획:** 6월 별관 준공 시 1층으로 이전 계획

문의: 도시재생과(031-790-5253)

119구급대 효율적인 운영 안내

- 119구급대는 국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1. 119구급대는 구급 대상자가 비응급 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2. 119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이송병원을 결정하며,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응급 상황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하남소방서(031-799-4313)

2021년 언택트 아웃리치 '온(溫)·만·추'(온라인 따뜻한 만남을 추천해)

OX 퀴즈 풀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오해 풀고!

○ **참여 대상:** 하남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 기간:** 2021. 4. 20.(화) ~ 2021. 5. 20.(목)

○ **내용**

1. '꿈드림' 안내 영상 시청 후 OX 퀴즈 풀면 모바일 쿠폰 1매 증정 (선착순 100명)
2. 만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온라인 정서행동특성검사 무료 실시
3. SNS에 '온·만·추' 게시물 공유 후 인증 시 모바일 쿠폰2 지원 (선착순 30명)

※ 인증 방법: 꿈드림 SNS에 '꿈드림 공유' 댓글 남기기

○ **참여 방법**

1. 하남시청 홈페이지 알림창 통해 온라인 참여 (<https://www.hanam.go.kr>)
2. 하남시 꿈드림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참여 (www.facebook.com/hanam6304)
3. 하남시 꿈드림 인스타그램에서 온라인 참여 (<https://www.instagram.com/hanam6304>)

문의: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031-790-6304)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에게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신고전화 1390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 상세 주소 부여 신청 안내

○ **상세 주소란**

-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적주소로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

○ **추진 배경**

- 다가구주택(단독주택)·원룸·상가 등에 상세 주소(동·층·호)를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찾기로 우편(택배)수령 편의와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

○ **신청 자격**

-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외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시청 토지정보과(주소관리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접수: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건물 배치도 등

○ **신청 구분**

- 소유자 → 건물 전체

- 임차인 → 임차부분 신청 가능

※ 임차인 신청 시 소유자에게 신청 요구 후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미신청하거나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단독 신청 가능

문의: 토지정보과(031-790-6154)

덕풍2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 **위치:** 신장로 170(덕풍동 387-19), 2층

○ **운영 시간:** 월~금 08시~23시(토, 일, 공휴일 제외), 5인 1조 2교대

○ **하는 일**

- 덕풍2동 주택 밀집 지역에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 제공
- 안전 방범 순찰, 무인택배함, 안심 귀가 서비스, 공구 대여, 환경 정화, 간단 집수리 등(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역할)

문의: 자치행정과(031-790-5343)

코로나19 극복 「제2차 상수도요금 감면」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2020년도에 이어 제2차 상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 **대상:** 하남 시민 전체(대규모 점포 및 발전소 제외)

○ **감면 기간:** 3개월(2021년 5 ~ 7월분)

○ **금액:** 사용요금의 50%

※ 2020년 총 20.5억 원(상수도요금 15 물이용부담금5.5) 감면 혜택

○ **감면 방법:** 요금 부과 시 직권감면(50%) 적용 후 고지서 발송

문의: 상수도과(031-790-6446)



하남시 시정 소식지 《청정하남》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5월호를 읽고 좋았던 내용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접수 방법 하남시청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청정하남 ⇨ 시정 소식지 독자 참여'를 통해 참여
- 접수 마감 매월 12일 • 선물 발송 매월 27일경 참여 시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기프티콘 발송 예정

남상주 독자

청정하남 소식지에도 봄이 왔네요. 지식샐러드 미세먼지 습격에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따라 환기, 개인위생 철저,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백선엽 독자

유니온파크에서 아이들과 항상 즐겁게 놀았는데, 여러 가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인 것은 알았으나 그 시설이 국내 최초라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자랑스럽습니다~

문찬웅 독자

이번 4월호 청정하남을 통해 지속 가능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남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인구 30만을 돌파한 하남시가 더욱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방선영 독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호에 나온 달래 연두부 샐러드를 주의 깊게 봤어요. 앞으로도 건강한 요리로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많은 레시피 부탁드립니다^^

이윤성 독자

코로나19 때문에 홀트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호에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 큰 도움이 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독자 퀴즈

하남시가 한국과학기술센터혁신센터와 협업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정보를 담은 모바일 앱은 무엇일까요? (5글자)

가로세로 낱말퍼즐

EVENT

아래 낱말 퍼즐에서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채워 인증샷을 1811-0751 문자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성함 기재 필수! 응모 기간은 5월 12일까지, 힌트는 본지 5월호에 있습니다.)

가로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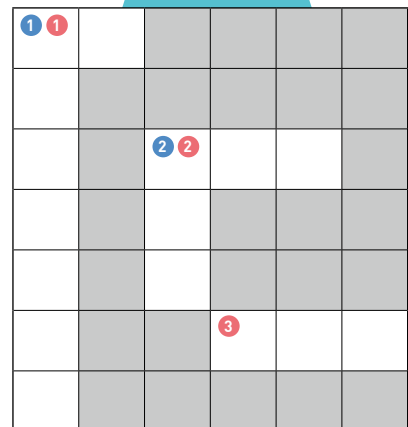
- 1 하남시 생활문화센터 □□는 하남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유 공간이다. □□에 들어갈 말은?
- 2 전라남도 남서부 해역에 있는 신안군은 군 전체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매결연 1주년을 맞아 그 중 '□□□'를 하남시의 섬으로 정하고 표지석을 설치하게 되었다. □□□에 들어갈 말은?
- 3 호미에 부딪힐 때 '바지락, 바지락'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은 껍데기까지 버릴 것이 없는 영양 덩어리다. □□□에 들어갈 말은?

세로 퀴즈

- 1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하남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전시하여 하남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총집합되어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 2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독자에게 도서·조사·연구·참고·취미 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기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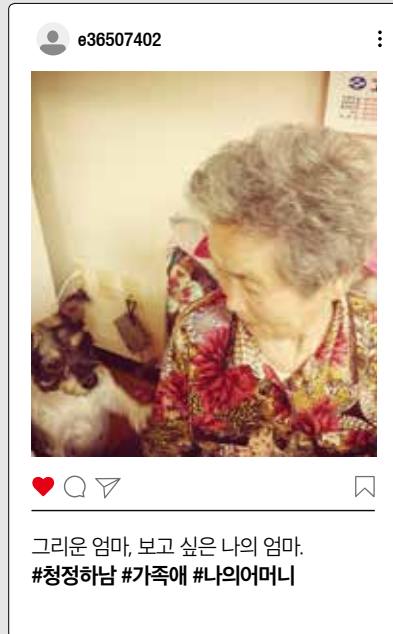
※ 4월호 정답은 ① 유니온파크 ② 달래 ③ 미세먼지 ④ 온도 ⑤ 지속가능입니다.

퍼즐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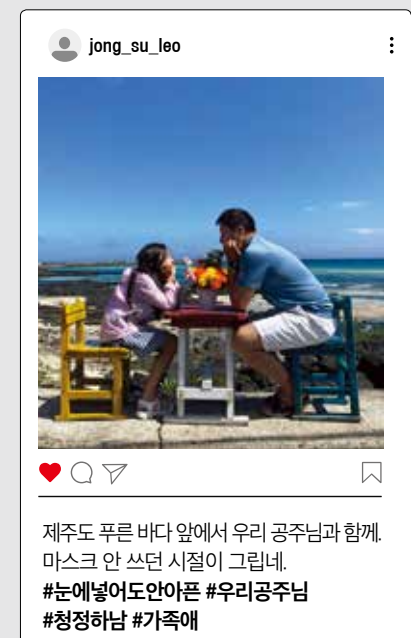
가장 소중한 그 이름 '가족'

#하남시민 #가족애 #행복 #사랑



#

6월호 인스타 주제어
#취향저격 입니다.
SNS 채널에 #청정하남 #취향저격
태그해주시거나,
주제어 관련 사진을 편집실 이메일
hanam-city@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5월 12일까지)





독자 글마당 '월간 한 줄'

부모님 삼행시

글 이태영

부: 부모님들
모: 모두가 우리들을
남: 임금님, 왕비님 같이 살려주셨지요.
우리는 그분들이 있었기에 최고였습니다.



부모님

글 장효선

꽃보다 더 어여쁜 우리의 어머님들,
'어쩌다 효도'를 빌미로 친정엄마와 함께한
1박 2일 여행, 오랜만에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까지나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엄마라서 그렇단다

글 채정미

내 손보다 더 작고
내 발보다 더 작은데

내 키보다 더 작고
내 몸무게보다 더 적게 나가는데

무거운 거
큰 거
나보다 더 잘 듣다

엄마라서 그렇단다



독자 글마당 '월간 한 줄' 모집

6월호 주제어

환경

생태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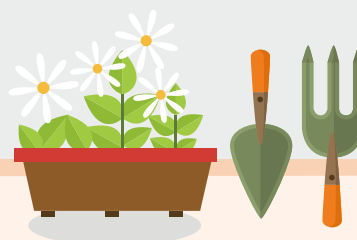
'월간 한 줄' 응모 방법

주제어가 담긴 사진과 이야기를 200자 이내로 보내주세요.

삼행시나 짧은 언어유희의 글도 좋아요!

hanam-city@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응모 기간은 5월 12일까지며, 채택된 이야기는 월간 한 줄 코너에 소개하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하남
풍산역

미사역

미사역
하남
풍산역
하남시청
(덕풍신장)역
하남
검단산역

5호선 전 구간
개통 완료

하남 시민 교통편의 탄탄대로!

하남시청
(덕풍신장)역

하남
검단산역